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몬(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제 1독서] 사도 3, 13-15, 17-19
[화답송] 시편 4, 2, 4, 7, 9(◎ 7)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또는 ◎ 알렐루야.)



-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저를 구해 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 주신다.◎
- 많은 이가 말하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 주라?"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제 2독서] 1요한 2, 1-5
[복음 환호송] 루카 24, 32 참조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음] 루카 24, 35-48

성가	8시 미사	입당 132	봉헌 215	성체 159 198	파견 32
	11시 미사	입당 132	봉헌 215	성체 159 198	파견 32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부활 제3주일(4월 19일)		부활 제4주일(4월 26일)		부활 제5주일(5월 3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일환프란치스코	3구역:변귀태성우안토니오	채성일토마스	4구역:김순희글라라	임승원루카	1 구역
제 1 독서	채성일토마스	3구역:이건호요한	강신희요한	4구역:구창희미카엘	최환준베네딕토	1 구역
제 2 독서	임승원루카	3구역:이수인글라라	김영선안젤라	4구역:양정화젼마	최수영베네딕타	1 구역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요즘 과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패러다임의 마비’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사고하는 방식을 넘어서지 못한다든지, 아예 새로운 사고를 반대할 때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패러다임의 마비’를 불러일으킵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인사하셨고, 함께 빵을 떼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제3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하십니다.

같은 예수님이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늘 복음의 제자들에게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결단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변화’라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는 기뻐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심적인 부담과 불편함을 줍니다. 변화하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로서는 수난과 함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보다 공생활 기간의 예수님이 더 그리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대로 받아먹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복음선포를 하시고, 병자와 마귀 들린 이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분, 예수님!!!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루카 24, 48)

증인의 역할이란 때가 되면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객관성에 근거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하는 의무를 가리킵니다. 이제 그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시던 시기는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권한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와 똑같은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루카 24, 49) 이제 증인인 제자들이 앞장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때가 되니 제자들은 불편한 마음과 걱정이 앞섰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상실한 것을 한탄하여 멈추거나 반대로 이를 박차고 나올 수 있다.’라는 글을 어느 책에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상실감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부활은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사건을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숨을 쉬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듯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가가야만 가능합니다.

즉,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위대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당신을 따르는 신앙을 가진 모든 이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선물을 위해 부활 이전의 마비되고 멈추어버린 신앙으로 우리를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깨닫해진 신앙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체험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인천주보 “오늘의 말씀” 중에서

생명의 말씀

알렐루야! 왕방강 잘고라줍서

1. “무지한 탓으로” (사도 3, 17)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구토(嘔吐 /Nausea)」라는 책을 통하여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느끼게 되는 무의미성(無意味性)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하고 노력한 만큼 그들의 삶이 풍요롭지 못함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밑바닥에는 자신들의 ‘무지(無知)’가 자리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인간은 이 세상을 자기 손안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2.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1요한 2,4)

얼마 전 고백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난청 3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입술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알린 그 신자분과 저는 칸막이 때문에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자분은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그 자리에서 분명히 체험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만일 우리들 마음이 닫혀있고 돌처럼 단단하다면, 우리들은 그 돌들을 손에 쥐고 던지려 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 예! 예!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한 길로 가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주 ‘하느님의 길’에 대하여 진저리를 느끼다고 말합니다.”

3.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루카 24,48)

제주도 절물자연휴양림 입구에 있는 “왕방강 잘고라줍서.”라는 환영 문구는 “와서 보고 가서 잘 이야기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이 실재(實在)임을 “나를 만져 보아라.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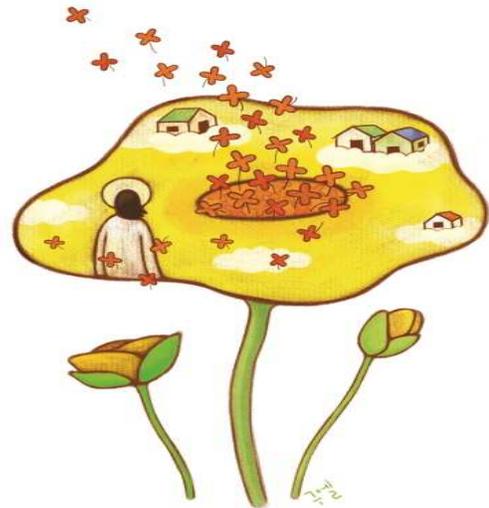
그리고 당신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준비하신 우연(偶然)이 아닌 필연(必然)적 사건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드냐?” 하시면서, 우리들도 당신 제자들처럼 부활 신앙의 증인이 되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4. 교형자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난 주일에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는 칙서를 공포하셨습니다. 이번 희년의 주제는 ‘자비가 풍성한 하느님’ (에페2,4)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의 삶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느님께서 주실 꿀(하느님의 온유하심과 선하심의 상징)을 담기 위하여” 그분의 자비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의 풍성한 자비 안에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연정신부
절두산순교성지 주임



부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애정입니다.
글_신은근 바오로 신부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영성심리상담

말씀의 향기

저는 ‘화를 내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에 짜증을 부렸습니다. 새내기 배우 시절 연기수업을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야 할 장면에서 화를 못 내고 짜증을 부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똑같은 상황은 반복되고 지속되었습니다.

작품에 맞춰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로서 몹시 고통스럽고 답답했습니다. 2009년 어느 날, ‘서울주보’를 읽다가 우연히 주보 뒷면에 실린 서울대교구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영성심리상담 봉사자 과정’ 수강생 모집공고를 봤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강신청을 했고, 매주 설레는 마음으로 1년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마음속 걱정을 털어내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함께한 한분 한분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에서 팍팍한 세상살이 가운데 피어난 끝없는 희망을 봤습니다.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기 전 많이 지쳐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위안부 할머니의 슬픔과 희망을 담은 연극 ‘나비-Comfort Women’을 막 마쳤을 때입니다.

기도를 해도 가슴은 허전했고, 봉사활동을 해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나비’에서 1인 2역으로, 위안부 할머니의 과거 어린 시절과 현재 손녀를 연기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을 표현한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TV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 이어 더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앞섰습니다. 정작 연기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을 조금씩 느낄수록 어느 순간부터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피를 토하는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을 때면 원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매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도 어김없이 참석했습니다.

배우로서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를 오랫동안 가슴에 담고 연기했기에

우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고통스럽다고 마음을 털어 놓고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가까운 가족조차도 멀게 느껴져 힘들었습니다. 세상은 추악하고 어두운 면만을 간직한 가짜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1년의 교육과정과 4년의 개인 심리상담을 받는 동안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많은 분들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상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움을 연민으로 이겨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이 특별히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 11,4 참조)

김현정 소화대리사
배우/화가

성경산책

진리를 외면한 빌라도

오늘 제1독서에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등장하는 빌라도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로마 정부가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주일미사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 신경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에도 등장합니다. 죄인들에게 붙잡힌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최고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집행은 로마제국의 승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여서 사형권과 집행권 등 중요한 권한은 여전히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의 풍속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몸이 더러워진다는 관습 때문에 빌라도 총독의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심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18,28-38/마태27, 1-2. 11-14/마르15, 1-5/루카 23, 1-5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했지만, 그분에게서 분명하게 로마의 법을 거스른 확증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동안 유대인들의 독립투쟁을 비롯해 종교문제를 많이 다루었지만, 이번처럼 애매한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전혀 예수님을 처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파스카 축제를 맞아 죄수를 사면해 주는 관습에 따라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18,38-19, 16/마태27, 15-31/루카23, 13-25/마르 15,6-20

빌라도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형을 선고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마침내 경비병을 시켜 물 한 대야를 떠다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자신은 이 사건과 관계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빌라도의 경우 지도자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하고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체할 때 얼마나 많은 이에게 고통을 안겨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인들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빌라도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허영엽신부
서울 대교구

♥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이오?”
하고 총독이 묻자, 예수님께서 ()하고
대답하셨다.(마태27,11)

빌라도가 그들에게
“도대체 그가 무슨 ()을 하였다는 말이오?”하자,
그들은 더욱 큰소리로 ()!! 하고 외쳤다.
(마르15,14)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4월 19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신마태오(현규)	신유스티나
	연	김클레멘스(진철)	노소피아
	연	구엘리사벳	한수산나(서연)
	연	신발바라/이마리아	이아나스타시아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최복동/원용락	원프란치스코
	생	본당신부님	서데레사
	생	3구역원	서데레사
	생	김에드워드(지성)	익명
	생	김카타리나(이나)	전수산나
	생	임루카가족	가족
4월 21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생	심미카엘(태규)	가족
4월 25일 토	생	성령기도회가족들	성령기도회
	생	박헬레나(호영)	정데레사(혜경)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77	184	48	309
헌금	\$492	\$1,813	\$109.50	\$2,414.50

< 교무금 > \$4,280

김영순(3-4) 이흥구(3-4) 김원덕(3-4) 염명련(3-4)
 유혜선(4) 전문자(4) 한서연(5-6) 최옥경(5-6)
 조관식(4) 김정복(4) 이경섭(3-4) 천종욱(4)
 서춘애(3-4) 김영길(3-4) 윤순의(3-4) 정진희(4)
 허동원(4) 김명환(3-4) 김정탁(3-4) 이선희(4)
 허호영(4) 최순일(4) 박진영(1-4) 임희숙(1-3)
 최몽렬(4) 육승주(3) 김옥녀(4) 이은자(4)
 유낙양(3-4) 이성재(3-4)

< 성소후원금 > \$200

김정복(4) 정일양(1-12) 서춘애(3) 이은자(4)
 박진영(4)

< Bishop's Appeal > \$150

정일양(1-12) 서춘애(5-6)

< 감사헌금 >

남금지 \$100

~~~~ 오늘 간식은 김원덕 시몬/안젤라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

- 공 지 사 양 -

- ◆ **건진성사** : 4월 26일 11시 반 미사 중
  - \* 집전 : 춘천교구 김운회 루카 주교님
  - \* 주교님께서 트라이밸리 건진미사를 마치고 오시는 관계로 이 날만 교중미사 시간이 30분 늦춰집니다.
  - \* 이 날은 합동미사로 아침미사 없습니다.

- ◆ **사목보고** : 4월 25일(토) 10시 친교실
  - \* 사목위원, 단체장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 ◆ **건진성사 교리**  
오늘 12시 30분부터 대부모들과 함께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 **한국학교 허지혜 학생이 북가주한국학교협회 주최 구연동화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 ◆ **Rice Bowl 봉헌** : 성당 입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510-847-3014
  - \* **구역반장회의** : 다음 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청소년 기금마련대회 준비모임**  
4월 19일(오늘) 교중미사 후 교육관 202호실

- ◆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일시 : 4월 23일(목) 오후 4시  
문의 : 이선희 막달레나 510-566-0582

- ◆ **대건 장학생 선발**  
지원서 : 친교실이나 사무실  
\* 성당 웹사이트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육승주 아오스딩 510-909-6626

- ◆ **서중부 여성 제10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일시 : 6월 25일(목) - 6월 28일(일)  
대상 : 건진성사를 받으신 모든 여성  
비용 : \$250  
신청 및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 **헤어컷 봉사자께서 도네이션 받으신 \$100 을 주일 학교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4월 반모임 안내**

| 구역 | 반         | 시간          | 장소       |
|----|-----------|-------------|----------|
| 1  | 샌리엔드로 E   | 4월25일(토)6시반 | 임희숙세트리다덕 |
|    | 실버반       | 4월25일(토)2시  | 파운더스룸    |
| 2  | 캐스트로밸리E/W | 4월25일(토)6시  | 이주황요한덕   |
| 3  | 리치몬드/버클리  | 4월25일(토)5시  | 평현팔하비에르덕 |
| 4  | 플레잔힐      | 4월25일(토)7시  | 정석준요한덕   |
|    | 라즈모어      | 4월24일(금)5시  | 조병국바오로덕  |

- ◆ **북가주 한인성당 친선 골프대회**  
일시 : 5월 16일(토) 12시까지 집결  
장소 : Wildhorse Golf Club(2323 Rockwell Dr. Davis)  
회비 : \$180(부부) \$100(개인)  
신청마감 : 4월 26일까지  
문의 : 김진홍 안토니오 916-605-6974

- ◆ **제 21차 북가주 성령대회**  
주제 :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에제 36, 26)  
강사 : 이미숙 아가다 수녀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 웃음 치료사)  
일시 : 6월 6일(토) 오전 8:30 - 오후 8:30  
장소 : 산호세 성당  
참가비 : \$25(pay to the order of KSCNC)  
\* 점심/저녁 제공, 무료 베이비시팅 제공  
문의 : 영명련 파트리샤 503-369-2945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 안셀모(4/21) : 한동철, 조승훈
- \* 마르코(4/25) : 양일규, 황문환

**주일학교 소식**

- Sunday School 11:00 ~ 12:15
- 영어미사 12시 30분

**안국학교 소식**

- 4월 25일 : 한국어능력시험
- 5월 9일 : 미술특강
- 5월 16일 : 종강식 및 학습발표회
- 5월 17일 : 미사 중 노래발표
- 5월 30일 : 소풍(Six Flags)